

동사구 생략에서의 초점억양 실현양상

Realization of Focal Accent in VP-ellipsis

김희성* · 이용재* · 김기호*

Heesung Kim · Young-Jae Lee · Kee-Ho Kim

ABSTRACT

Linguistically, "Focus" is the element which includes new or un presupposed information. It is usually signalled by prosodic prominence called the 'pitch acc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realization of the focal accent in VP-ellipsis, especially, to affect the meaning recovery of elided VP. Asher (1999) gave evidence that focal stress should be on the higher verb and the AUX in order to recover the elided VP to the lower one. In this paper, the systematic patterning of focal accent to decide the elided meaning in VP-ellipsis is to be observed. The realization of focal accent by English native speakers is set as the criteria for the meaning recovery of the elided VP and is compared to Koreans'. Moreover, the focal accents of Koreans are observ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Keywords: Focus, Focal Accent, Recovery of Meaning, VP-ellipsis

1. 서론

초점(Focus)은, Gundel(199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학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지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비전제된(unpresupposed) 정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What did you buy?"라는 질문에 대해 "I bought a computer."라고 응답할 경우, 초점은 새로운 정보이자 전제되지 않은 정보인 'a comPUter'가 되며, 이렇게 새로운 정보로 초점을 받는 요소는 억양 구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성조(H*)의 피치 악센트로 구현된다(Pierrhumbert & Hirschiberg, 1990). 이에 반하여 대명사(pronoun)는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요소인 구정보를 다시 지칭하므로, 신정보로 해석되는 초점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고성조(H*)의 피치악센트를 부여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Do you think Jane is cute?"라는 질문에 "Yeah, I think she(=Jane) is cute."라고 답할 경우, 대명사 'she'는 'Jane'이라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구정보를 가리키므로 고성조의 피치 악센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최근 Asher(1999)는 동사구가 생략된 생략 구문에서 대명사가 경우에 따라 대조적인 의미의 고성조(H*) 피치악센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1)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John said Mary_i won the race but she_i didn't.

(1)의 문장은 동사구가 생략된 문장이므로써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2) a. John [said Mary_i won the race]_{VP1} but Mary_i didn't [say she_i won the race]_{VP1}.

b. John said Mary_i [won the race]_{VP2} but she_i didn't [win the race]_{VP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의미의 중의성이 각기 다른 초점악센트의 구현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Asher에 의하면, 문장(1)이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처럼 John과 대명사인 she에 대조초점이 구현되면 (2a)의 의미로, 즉 “존은 메리가 시합에서 이겼다고 말했지만, 메리는 자신이 시합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되는 반면,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처럼 동사 said와 didn't에 대조초점이 구현되면 (2b)의 의미, 즉 “존은 메리가 시합에 이겼다고 말했지만 메리는 시합에서 이기지 않았다.”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사구 생략 구문에 있어서 Ash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조초점의 구현에 따라 실제로 생략 구문의 중의성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원어민 화자의 발화 실험과 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 아울러 동일한 실험 자료를 한국인 화자에게 실험해 봄으로써 한국인의 영어 발음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실험

대조 초점에 의해 동사구 생략에 의한 중의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실험, 즉 발화 실험과 인지 실험을 하였다.

2.1 피험자

본 실험에는 영어 원어민 화자 8 명과 한국인 화자 10 명이 피실험자로 참여하였다. 발화 실험에 원어민 4 명과 한국인 6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인의 경우, 토플시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영어능력 상위 3 명(TOEFL 600-650), 하위 3 명(TOEFL 450-490)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실험에는 원어민과 한국인이 각각 4 명씩 참여하였고, 한국인 피험자의 경우 오직 상위자들에게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K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20 대 초반부터 40 대 후반까지의 강사들이다.

2.2 실험 문장

2.2.1 발화 실험

실험 문장은 다음 보기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서 후행 문장의 동사구가 생략된 구문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보기 (3)의 문장들은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 (3) (A)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B) Jim heard Mary hid the criminal but she didn't.
- (C) George believed Janet passed the exam but she didn't.
- (D)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 (E) Eddy murmured Crystal made a mistake but she didn't.

위의 문장에 대해 첫째, 후행하는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의 선행사가 선행 문장에 존재하느냐의 여부, 둘째, 상위절 주어+동사 뒤에 절이 오는지의 여부(문장의 길이가 초점억양의 실현에 영향을 주느냐를 보기 위함), 셋째, 동사 생략부분의 의미 복원 영역이 상위절 인지 혹은 하위절인지의 여부에 따라, 표 1과 같이 각기 6 개의 하위 문장들을 구성하였다.

표 1. 원문장, 동사구 생략 문장, 동사구 부분의 의미복원 영역에 따른 초점억양 실현

| A | 원래문장 | 동사구 생략 문장 | 기대되는 초점억양 실현 |
|---|---|---|---|
| 1 | John said it but Eddy <u>didn't say it.</u> | John _i said it but he _j didn't. | JOHN _i said it but HE _j (Eddy) didn't. |
| 2 | John said it but Cindy <u>didn't say it.</u> | John said it but she didn't. | JOHN said it but SHE (Pearl) didn't. |
| 3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Eddy <u>didn't say Mary won the race.</u> | John _i said Mary won the race but he didn't. | JOHN _i said Mary won the race but HE _j (Eddy) didn't. (higher VP 의미 복원) |
| 4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 <u>didn't win the race.</u> | John said Mary _i won the race but she _j didn't. | John SAID Mary _i won the race but she _j (Mary) DIDN'T . (lower VP 의미 복원) |
| 5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 _i <u>didn't say she_j won the race.</u> | John said Mary _i won the race but she _j didn't. | JOHN said Mary _i won the race but SHE _j (Mary) didn't. (higher VP 의미 복원) |
| 6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Pearl <u>didn't say Mary won the race.</u>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Pearl) didn't. (higher VP 의미 복원)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 문장 1과 2는 후행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 'he'와 'she'가 선행 문장에 선행사를 갖지 않으므로, 선행 문장의 주어 'John'과 대조 초점을 이루어, Asher에 의하면, "**JOHN**_i said it but **HE**_j(Eddy) didn't (say it)."와 "**JOHN** said it but **SHE**(Pearl) didn't (say it)."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하위 문장 3과 6의 경우, 문장 1과 2와는 달리, 생략된 동사구 속에 절이 내포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장 역시 후행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 'he'와 'she'가 선행 문장에 선행사를 갖지 않으므로, 선행 문장의 주어 'John'과 대조 초점을 이루어, "**JOHN**_i said Mary won the race but **HE**_j(Eddy) didn't (say Mary won the race)."와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Pearl) didn't (say

Mary won the race)."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위 문장 4와 5의 경우, 후행 문장에 나오는 대명사 'she'의 선행사 'Mary'가 선행 문장에 나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장 4의 경우에는 동사구의 생략부분의 의미가 하위 동사구(lower VP)로 복원되므로, "John SAID Mary_i won the race but she_i(Mary) DIDN'T(win the race)."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문장 5의 경우에는 동사구의 생략부분이 상위 동사구(higher VP)로 복원되므로, "JOHN said Mary_i won the race but SHE_i(Mary) didn't(say Mary won the race)."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 복원에 따른 상이한 초점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동사구 부분이 생략되지 않은 원래의 문장을 주고 이를 she/he didn't로 된 문장으로 바꿔 읽도록(paraphrase) 하였으며, 모든 문장들(5 세트×6 문장=30 문장)은 그 실험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 분석에는 총 810(5 세트×6 문장×10 화자×1~3 반복)개의 발화가 사용되었다.

2.2.2 인지 실험

인지 실험에서는 중의성을 지니므로 상이한 억양 구현을 보이는 하위 문장 4와 5만을 사용하였다. 특히 문장 4의 경우, 실제 발화 실험의 결과에서 Asher가 기대한 유형(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보다 didn't에 초점악센트를 가진 다른 유형 즉,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와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의 생산이 오히려 더 많았으므로 이들을 모두 실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하위절 she와 didn't에 대한 초점악센트 여부가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놓인 유형(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과 둘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없는 유형(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도 함께 실험을 실시하였다. 문장 5는 Asher가 기대한 유형("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여섯 종류의 문장을 각각 다섯 문항씩 뽑아 총 30 문항을 만들고 무작위로 섞어,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험자들이 다른 초점악센트를 가진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4) (tape)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①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 didn't say she won the race.
 ②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 didn't win the race.

2.3 실험 절차

발화실험에서의 녹음과 인지실험에서의 문장청취에 DAT(Digital Audio Tape)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화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테스트하였고 특히 발화실험에서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렇게 얻은 발화는 음성분석용 PitchWorks를 통해 피치곡선으로 전환하여 억양음운론의 억양 기술 방식인 ToBI(Tone and Break Indices) 방식(Silverman, et.al 1992)으로 기술하였다.

3. 결 과

3.1 발화실험

3.1.1 초점 약센트의 실현 양상

실제 실험 결과로 나온 초점약센트의 유형을 she와 didn't를 중심으로 초점약센트가 she에만 온 경우, didn't에만 온 경우, she와 didn't 모두에 온 경우, 둘 모두에 오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초점약센트의 실현 유형

| 유형 \ 예문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I-1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2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3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II-1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2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3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4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III-1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2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3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 IV-1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 -2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 |

3.1.1.1 영어 원어민 화자

Asher의 주장을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문장에서 보면, didn't 이하가 admitted Amy lost the game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MICHAEL**과 **SHE** 위에 초점약센트(**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가 놓이고, lost the game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ADMITTED**와 **DIDN'T** 위에(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 초점약센트가 놓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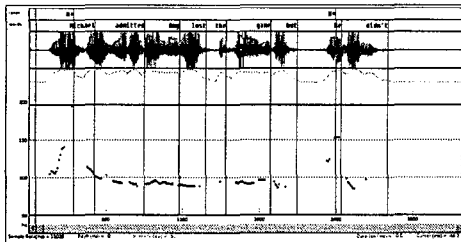
발화실험의 초점약센트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영어원어민 화자의 경우 표 3에서 보듯, 상위동사구로 복원되는 문장 1, 2, 3, 5, 6은 유형 I-1("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로 실현하였다. 반면, 문장 4에 있어서는 실제 실험 결과가 Asher의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Asher는 하위절 의미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ADMITTED** 와 **DIDN'T** 위에 초점 약센트가 놓인다(유형 II-1: 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고 하였지만, 실제로 모두 **MICHAEL**에도 피치약센트를 실현시키며 45 개 발화 중 8 개를 유형 II-2("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으로, 27개를 유형 II-3("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으로 실현하였다.

표 3. 원어민들의 초점악센트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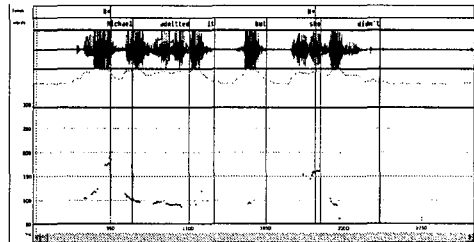
| 문장 \ 유형 | I-1 | I-2 | II-1 | II-2 | II-3 | III-1 | 기타(III-3) | 합계 |
|---------|-----|-----|------|------|------|-------|-----------|-----|
| 1 | 39 | 2 | 0 | 1 | 0 | 3 | 0 | 45 |
| 2 | 36 | 1 | 0 | 2 | 0 | 6 | 0 | 45 |
| 3 | 32 | 0 | 0 | 2 | 0 | 9 | 2 | 45 |
| 4 | 3 | 1 | 1 | 8 | 27 | 4 | 1 | 45 |
| 5 | 34 | 3 | 0 | 0 | 0 | 8 | 0 | 45 |
| 6 | 29 | 0 | 0 | 0 | 3 | 12 | 1 | 45 |
| 합계(빈도) | 173 | 7 | 1 | 13 | 30 | 42 | 4 | 270 |

표 3의 문장 1, 2, 3, 5, 6에 대한 유형 III-1("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의 빈도수가 유형 I-1("MICHAEL admitted Amy_i lost the game but SHE_i(Amy) didn't.") 다음으로 많은 것은 원어민화자 중 한 명이 she/he didn't 부분을 didn't 이하 의미에 상관없이 모두 다 H*(she/he)·!H*(didn't)으로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이 원어민화자의 경우, she/he didn't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을 초점악센트 구현의 차이로 해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의 구현은 전혀 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1은 생략된 동사에 선행문장의 상위동사구가 복원되는 경우, 그림 2는 하위동사구가 복원되는 경우의 억양곡선이다. 원어민 화자들은 한 곳에 피치악센트를 주면 다른 위치에 있는 악센트는 해지(deaccenting)를 시키므로 고성조가 매우 두드러지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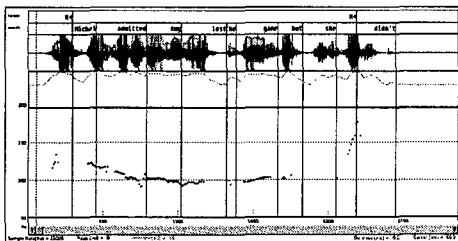


MICHAEL admitted it but SHE did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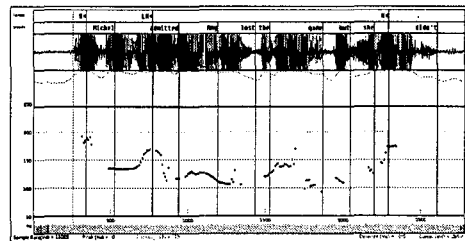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그림 1. 원어민들의 억양곡선-유형 I-1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그림 2. 원어민들의 억양곡선-유형 II-2 &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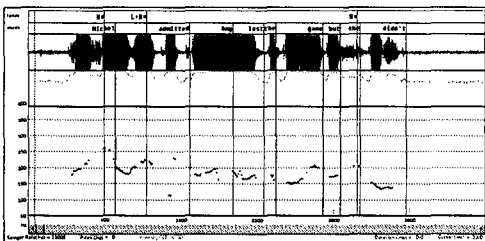
3.1.1.2 한국인 화자

한국인 화자들은 문장 1, 2, 3, 5, 6과 문장 4를 생략된 동사구의 복원영역에 따른 의미차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유형 I-1, I-2, II-2, II-3으로 실현하였다. 이는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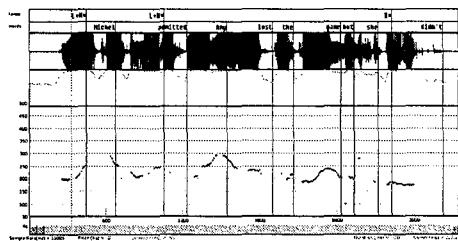
표 4. 한국인 화자들의 초점억센트 실현 양상¹⁾

| | I-1 | I-2 | II-1 | II-2 | II-3 | III-3 | IV-1 | 기타(I-3, II-4, III-1, III-2, IV-2) | 합계 |
|----|-----|-----|------|------|------|-------|------|-----------------------------------|-----|
| 1 | 10 | 10 | 3 | 26 | 11 | 3 | 13 | 14 | 90 |
| 2 | 7 | 20 | 4 | 30 | 9 | 7 | 7 | 6 | 90 |
| 3 | 15 | 10 | 3 | 18 | 16 | 5 | 7 | 16 | 90 |
| 4 | 7 | 9 | 6 | 23 | 23 | 5 | 2 | 14 | 89 |
| 5 | 15 | 14 | 5 | 18 | 15 | 3 | 5 | 15 | 90 |
| 6 | 16 | 11 | 6 | 15 | 17 | 3 | 5 | 15 | 88 |
| 합계 | 70 | 74 | 27 | 130 | 91 | 26 | 39 | 80 | 537 |

표 4에서 한국인 화자들이 가장 많이 발화한 네 가지 유형은 빈도순으로 II-2, II-3, I-2, I-1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현 결과를 일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유형 II-2의 최다 실현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인 화자들은 대체로 모든 내용어(content word: 실질적 의미내용을 가진 낱말)에 피치악센트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어인 John said에 피치악센트를 주고, didn't는 기능어(function word: 실질적 의미내용을 가지지 않는 낱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문의 동사를 부정하는 의미상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피치악센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너무 무리한 유추 포함할뿐더러, 내용어 said에 피치악센트를 주지 않은 채 기능어인 she에는 준 유형 II-3과 의미적으로 중요한 didn't에 피치악센트를 주지 않은 유형 I-2 & I-1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인 화자들의 초점억센트 실현은 무작위적이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림 3을 통하여 한국인 화자들이 실현한 유형 I-2, II-2의 억양곡선을 살펴보자.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MICHAEL ADMITTED Amy lost the game but she DIDN'T.

그림 3. 한국인 화자들의 억양곡선-유형 I-2 & II-2

1) 10 이하의 발화 빈도수를 보이는 유형은 기타에 하나로 묶어 처리하였다.

그림 3에서 한국인화자들이 실현한 she와 didn't의 H*는 그림 1, 2의 원어민들의 것보다 분명치를 얹는데, 이것은 한국인 화자들이 피치악센트를 거의 모든 내용에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원어민 화자들은 한 곳에 피치악센트를 주면 다른 위치에서는 악센트해지(deaccenting)를 시키므로 H*를 받는 고성조가 매우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한국인 화자들의 억양곡선은 그렇지 않다.

3.1.2 발화 반복시 초점악센트 실현의 일관성

그림 4에서 보듯 영어 원어민 화자는 발화가 반복될 때마다 초점악센트를 일관성 있게 실현하였다. 그 결과 초점악센트실현 유형의 개수가 적고(총 7 개) 특정유형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한국인 화자는 일관성이 현격히 떨어졌다. 반복할 때마다 다른 억양을 실현하는 경향이 강하여 실현 유형의 개수가 많았고(총 12 개) 비슷한 정도의 빈도를 가진 유형들 때문에 유사한 높이의 막대들도 많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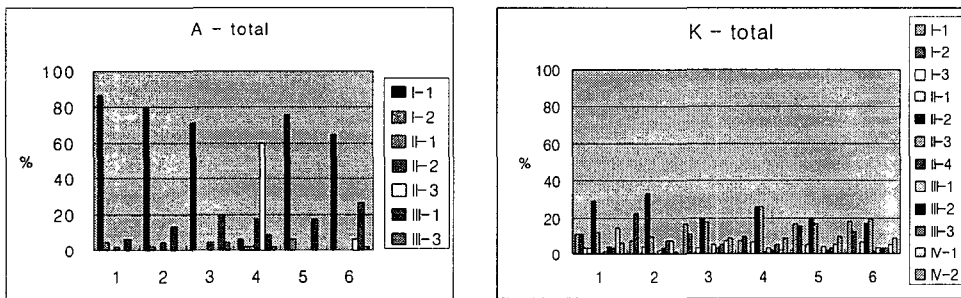


그림 4. 원어민(A-total)과 한국인 화자들(K-total)의 초점악센트 실현 비율

3.1.3 문장길이에 따른 초점 악센트 실현 양상

영어 원어민 화자는 짧은 문장 1, 2이든 긴 문장 3, 5, 6이든 문장길이에 상관없이 상위동사구 의미로 복원되는 문장 1, 2, 3, 5, 6을 모두 유형 I-1으로 실현하였다(표 3, 그림 4). 이는 원어민 화자들이 문장 길이와는 상관없이 동사구 생략부분의 복원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초점악센트를 실현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인 화자들은 영어능력 상위자와 하위자 모두가 문장을 대체로 유형 I-1, I-2, II-2, II-3으로 실현하였다(표 4, 그림 4). 따라서, 한국인 화자는 동사구 생략부분의 복원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초점악센트를 무작위로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능력 상위자의 경우 짧은 문장에 있어서는 원어민 화자와 같은 초점악센트를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3.1.4 영어능력에 따른 한국인화자의 초점악센트 실현 결과 차이

표 5의 결과에서 보듯, 영어능력 상위자들이 문장 4의 초점악센트를 원어민처럼 실현(유형 II-2 & II-3)한 빈도는 유형 II-2에서 11개, 유형 II-3에서 16 개인 총 27 개로 영어능력 하위자들이 실현한 빈도(유형 II-2의 12 개, 유형 II-3의 7 개인 총 19 개)보다 높았다.

표 5. 영어능력 상위(K-600) & 하위(K-400) 한국인 화자들의 초점억센트 실현

| | I-1 | | I-2 | | II-1 | | II-2 | | II-3 | | 기타 | |
|--------|-----|----|-----|----|------|----|------|----|------|----|----|----|
| 1 | 7 | 3 | 8 | 2 | | 3 | 18 | 8 | 8 | 3 | 4 | 20 |
| 2 | 8 | 4 | 8 | 10 | | 4 | 10 | 14 | 11 | 4 | 8 | 9 |
| 3 | 3 | 7 | 10 | 2 | | 3 | 16 | 8 | 5 | 5 | 11 | 20 |
| 4 | 5 | 2 | 3 | 6 | | 6 | 11 | 12 | 16 | 7 | 10 | 11 |
| 5 | 7 | 8 | 6 | 8 | | 5 | 10 | 8 | 8 | 7 | 14 | 9 |
| 6 | 8 | 8 | 3 | 8 | | 6 | 12 | 3 | 7 | 10 | 14 | 9 |
| 합계(빈도) | 38 | 32 | 38 | 36 | | 27 | 77 | 53 | 55 | 36 | 61 | 84 |

* K-600의 기타에 포함된 유형: I-3, II-1, II-4, III-1, III-2, III-3, IV-1, IV-2
 K-400의 기타에 포함된 유형: I-3, II-4, III-1, III-2, III-3, IV-1, IV-2

그러나 영어능력 상위자들이 원어민처럼 초점억센트를 실현(유형 II-2 & II-3)한 빈도가 하위자들의 빈도보다 높았다하더라도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유의수준 0.05, 표 7의 K-600: K-400 참조). 즉, 문장 4에 있어 상위자들이 하위자들보다 원어민처럼 몇 개 더 실현하기는 했지만 정말 상위자들의 영어능력(proficiency)이 더 나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6, 7은 SPSS 통계프로그램의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통한 카이제곱검정(χ^2 -test)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장 4의 화자군(speaker group) 간 초점억센트 실현의 유사성을 평가해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한 결과이다.

표 6. 화자(원어민: K-600: K-400) • 초점억센트 유형(빈도(%)) 교차표²⁾

| | I-1 | I-2 | II-1 | II-2 | II-3 | II-4 | III-1 | III-2 | III-3 | IV-1 | VI-2 |
|-------|---------|---------|---------|----------|----------|--------|--------|--------|--------|--------|---------|
| 원어민 | 3(6.7) | 1(2.2) | 1(2.2) | 8(17.8) | 27(60.0) | 0(0) | 4(8.9) | 0(0) | 1(2.2) | 0(0) | 0(0) |
| K-600 | 5(11.1) | 3(6.7) | 0(0) | 11(24.4) | 16(35.6) | 0(0) | 2(4.4) | 0(0) | 4(8.9) | 1(2.1) | 3(6.7) |
| K-400 | 2(4.5) | 6(13.6) | 6(13.6) | 12(27.3) | 7(15.9) | 1(2.3) | 1(2.3) | 2(4.5) | 1(2.3) | 1(2.3) | 5(11.4) |

표 7. 화자 • 초점억센트 유형의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검정

| | 카이제곱값 | 자유도 | 유의확률(양측) |
|--------------|--------|-----|----------------------------|
| 원어민: K-600 | 12.254 | 8 | 0.140 |
| 원어민: K-400 | 30.700 | 10 | $6.58 \times 10^{-4}^{**}$ |
| K-600: K-400 | 17.475 | 10 | 0.064 |

** p < 0.01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원어민과 K-600 간의 초점억센트 유형 유사성의 유의성 판정 결과는 유의확률 p > 0.05로 “유의수준 0.05에서 문장4의 초점억센트 실현이 화자군(원어민

2)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발화 빈도수가 적은 것을 기타로 묶어 하나로 처리하면 변수가 줄어들면서 검정값의 정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여기서는 10 이하의 유형도 변수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과 K-600) 간에 차이가 없어 '영어능력상위자가 미국인처럼 초점억양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원어민과 K-400은 유의확률 $p < 0.0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화자군(원어민과 K-400) 간에 차이가 있어 '영어능력하위자가 원어민처럼 초점억양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나오므로 영어능력 상위자들이 더 원어민처럼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 내의 영어능력 상위자와 하위자의 유의성 판정 결과에 있어서는 $p > 0.05$ 로 유의수준 0.05에서 화자군(K-600과 K-400) 간에 차이가 없어 "영어능력상위의 한국인과 영어능력 하위의 한국인의 초점억양 실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다. 즉, 영어능력 상위자들이 하위자들보다 더 원어민처럼 실현하기는 했지만 정말 영어능력(proficiency)이 나서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능력 하위자들은 그림 6에서 보듯 she didn't 부분에 'PitchWorks 상 억양곡선(pitch contour)이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급격한 성조변화나 귀에 들리는 특별한 흔들림이 없어 피치악센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억양을 많이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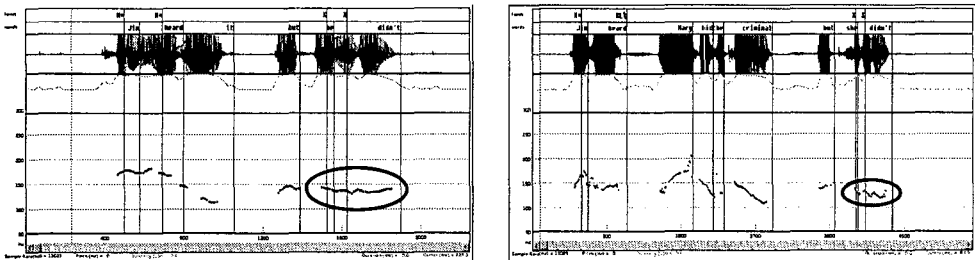


그림 6. 영어능력 하위자들의 억양곡선-유형 IV-1 & IV-2

3.2 인지 실험

2.2.2에서 언급했듯이, 여섯 종류의 문장을 다섯 문항씩 뽑아 총 30 문항을 만들고, 피험자들이 각기 다른 초점악센트를 가진 문장을 들은 후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원어민에 비해 한국인 화자가 낮은 정당률을 보일 것이라는 결과는 발화실험을 통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영어능력 하위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오직 상위자들에게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화 실험에서 문장 4의 경우, 원어민들이 'said에는 초점악센트가 없고 didn't에만 있는' 유형 II-3을 가장 많이 생산한 것을 보고 'Asher의 주장(said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오면 상위로 복원된다)과 달리, didn't의 초점악센트 여부가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인지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didn't에 초점악센트가 없는 문장(I-I, V-1)은 상위로 복원되는 ㉠를 정답으로, didn't에 초점악센트가 있는 문장(II-1~3, III-1)은 하위로 복원되는 ㉡를 정답으로 채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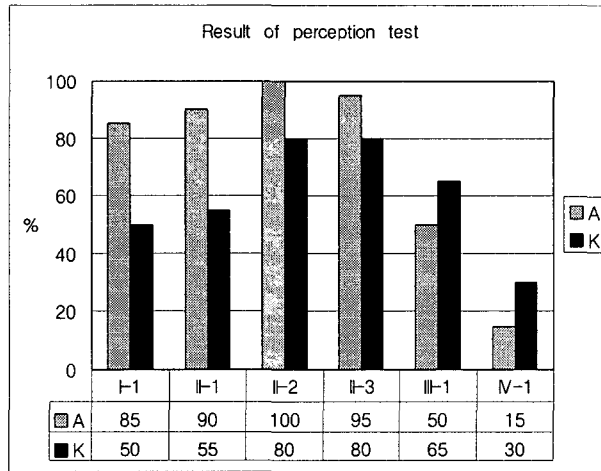


그림 7. 인지 실험 결과 비율

그러나 실제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과 차이를 보였다(그림 7). 특히,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약센트가 있는 유형 III-1과 둘 다에 초점약센트가 없는 유형 IV-1의 경우 오히려 원어 민화자의 정답률이 한국어 화자의 정답률 보다 낮은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Asher의 주장이나 실험전의 가정과는 달리-원어민들이 she에 초점약센트가 없으면(II-1~3, IV-1) 하위로, she에 초점약센트가 있으면서 didn't에 초점약센트가 없으면(I-1) 상위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약센트가 온 경우(III-1)에 '원어민들이 혼동을 일으켜 어느 한 가지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다'³⁾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4. 논의 및 결론

일반적으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정보나 비전제된(unpresupposed) 정보를 초점(Focus)이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로 초점을 받는 요소는 억양 구현에 있어 대체로 고성조(H*)의 피치약센트로 구현되며,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요소를 다시 지칭하는 대명사는 고성조(H*)의 피치약센트를 부여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화상에서 대조되는 위치에 있는 대명사는 대조초점을 받아 피치약센트를 갖기도 한다. 대명사는 그것이 지칭하는 지시사가 무엇이나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ambiguity)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앞서 언급한 이러한 운율적인 면과 이것이 연관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Asher(1999)가 이것을 대명사와 관련된 생략된 동사구 의미와 초점약센트 사이의 관계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라는 문장에서, didn't이 said Mary won the race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John과 she 위에 초점약센트가 놓이고(**JOHN** said Mary_i won the race but

3) 유형 III-1에 대한 인지실험에서 전체 20 문항(5 문항×4 화자) 중 8 문항은 상위의미(Ⓐ), 10 문항은 하위의미(Ⓑ) 그리고 2 문항은 무응답이었다.

SHE_i didn't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_i didn't say she_i won the race), won the race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said와 didn't 위에 초점악센트가 놓여야 한다(John **SAID** Mary_i won the race but she_i **DIDN'T** →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Mary didn't win the race))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사구 생략 구문에 있어서 Ash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조초점의 구현에 따라 실제로 생략 구문의 중의성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원어민 화자의 발화 실험과 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발화실험 결과는 초점악센트 실현, 발화 반복시의 일관성, 문장 길이, 영어능력의 차이에 따른 한국인 화자의 실현 결과의 차이로 분류하였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 문장 1, 2, 3, 5, 6는 유형 I-1(**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로 실현하여 Asher의 주장에 일치하였으나 문장 4는 차이를 보였다(유형 II-1이 아닌 II-3: **JOHN** said Mary won the race but she **DIDN'T**로 가장 많이 실현). 원어민의 발화는 반복 시에도 초점악센트 실현에 일관성을 보였고, 문장 길이와 상관없이 동사구 생략부분의 의미복원에 따라 초점악센트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들은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복원의 영역에 따른 의미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모든 문장을 유형 I-1, I-2, II-2, II-3으로 실현하였으며 발화가 반복되는 중 초점악센트의 실현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인지 실험에서는 하위 문장 4와 5만을 사용하였다. 특히 문장 4의 경우, 발화 실험의 결과에서 Asher가 기대한 상위복원 유형 I-1, 하위복원 유형 II-1과 실제 하위복원으로 생산된 II-2, II-3을 모두 실험에 포함시켰고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놓인 유형 III-1과 둘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없는 유형 IV-1들도 함께 실험을 실시하였다. 'Asher의 주장(said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오면 상위로 복원된다)과 달리, didn't의 초점악센트 여부가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인지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실제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과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있는 유형 III-1과 둘 다에 초점악센트가 없는 유형 IV-1의 경우 오히려 원어민화자의 정답률이 한국인 화자의 정답률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Asher의 주장이나 실험전의 가정과는 달리-원어민들이 she에 초점악센트가 없으면(II-1~3, IV-1) 하위로, she에 초점악센트가 있으면서 didn't에 초점악센트가 없으면(I-1) 상위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she와 didn't 모두에 초점악센트가 온 경우(III-1)에 '원어민들이 혼동을 일으켜 어느 한가지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생략된 동사구의 의미에 따른 초점악센트의 실현을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사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인 화자의 경우, 영어능력 하위자 뿐 아니라 영어능력 상위자들도 기대했던 초점악센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 한국인의 영어 발음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 "억양 음운론의 소개." *음성과학*, 6, 119-143.
- _____. 2000.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영어 의미분석." *음성과학*, 7, 109-125.
- Asher, N. 1999. "Discourse and the Focus/Background Distinction." *Focus-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7-267.
- Beckman, M. & Pierrehumbert J. B.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15-70.
- Gardent, C. 2000. "Deaccenting and Higher-Order Unification." *Journal of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9, 313-338.
- Gundel. J. 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ed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1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Semantics*, 457-466.
- Kehler, A. 2000. "Coherence and the Resolution of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3, 533-575.
- Ladd, D. 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 Pierrehumbert, J. &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L MIT Press, 271-311.
- Rooth, M. 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Silverman et.al. 1992. "ToBI: A Standard for Labeling English Prosody." *Proceedings,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2, 867-70. Banff, Canada.
- Taglicht, J. 1984. *Message and Emphasis*. Longman.

접수일자: 2002. 7. 10.

게재결정: 2002. 9. 6.

▲ 김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heesung0221@hotmail.com

▲ 이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3 (O)
E-mail: yjaelee@korea.ac.kr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